

사회

Social Affairs

7 광주일보

제17455호 2006년 5월 24일 수요일

공짜 해외여행 한 뒤 분실신고 전남경찰, 여권 밀매 9명 검거

여권 밀매 알선 브로커와 짜고 공짜 해외여행을 한 뒤 자신의 여권을 밀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3일 국내 여권을 해외에서 불법 판매해온 혐의(여권법 위반)로 배모(여·4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여권 밀매 알선 브로커 총책 김모(45)씨를 인터폴에 명예수배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8월부터 홍콩에 머물면서 지난해 2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온 배씨 등 8명을 4차례에 걸쳐 홍콩으로 초청한 뒤 항공료와 숙식비 등을 제공하고, 1인당 100만원에 여권을 사들여 이를 현지 여권 밀매자들에게 1매당 400만~500만원에 렌트를 했다.

또 배씨 등은 여권 밀매 대가로 2박3일간 현지 여행을 즐기고 용돈까지 받아 쟁기 뒤 버젓이 홍콩 주재 한국영사관에 찾아가 여권분실 신고를 한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밀매된 여권 중 5매가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일명 창지기)으로 조작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여권 소유자와 이용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공짜 여행마다 사례비까지 준다면 여권 밀매자를 모집한 후 중국이나 태국 현지 브로커와 손잡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비례대표 공천미끼 돈 받은

M일보 광양 주재기자 구속

지역연구소 책임자를 사칭,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현직 기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은 23일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의사기)로 광주 M일보 광양주재 기자 고도(43)씨와 인터넷 신문사 기자 이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 3일 광양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민주당 광양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원하던 A(45)씨에게 '비례대표 1번 공천이 유력시되는 B씨를 탈락시켜주겠다'고 제의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것이다.

고씨는 또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써주겠다"며 A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전 광양지역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광양만권발전연구원' 정책실장 조모씨를 사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씨의 명함을 사전에 입수해 A씨에게 보여주는 등 지능적인 범행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거리에서 호프집에서 “대~한민국”

월드컵 개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 오면서 광주·전남 응원단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대표적인 응원단은 지난 3월 출범한 '아리랑 응원단'. 이 응원단은 현재 회원 수가 1만5천여명으로 '월드컵 응원교실'까지 열며 팬연습 중이다. 최근 응원단에 가입한 광주시 광산구 용동 '엠에스 산업'(대표 임인택) 직원 25명은 일과 후 짬짬이 응원 연습을 하고 있으며, 월드컵 기간 중 모두 거리에 나선다.

'붉은 악마'와 도심 속 문화계릴라 '모난돌'(www.monandol.net)은 다음 달 13일 토고전을 시작으로 ▲19일 프

아리랑·모난돌·금강산 응원단 등

월드컵경기장·전남대 후문서 응원

랑스전 ▲24일 스위스전 때 전남대 후문 앞에서 대규모 거리 응원전을 갖는다. '모난돌'은 이에 앞서 6월4일 열리는 한국과 가나의 평가전 때 전대 후문에서 사전 예행 연습을 겸한 거리 응원전을 열기로 했으며, 지원활동가도 모집 중이다.

광주시도 한국팀 경기 때 월드컵 경기장을 개방하고 응원축제 행사를

하기로 했다. 경기전에는 ▲여자 축구팀 시범경기 ▲록밴드와 사물놀이페 등 승리기원 축하공연 ▲꽃집집 댄스 경연을 펼치고, 경기 시작과 함께 상무프로축구 치어리더팀과 고적대를 동원한 대규모 응원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옛 도청 앞·시청 미관광장·첨단공원 등에서 전광판과 차량을 이용한 응원과 불꽃놀이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 축구팬들이 23일 오후 상무지구 시청 앞 미관광장에 운집, 세네갈과 평가전을 갖는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다. 오는 6월 개막되는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선 붉은 악마 외에도 회사·지역·단체별로 소규모 응원단을 조직, 다양한 '거리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역은 한국과 스위스전이 열리는 6월24일 금강산에서 대형 TV를 통해 월드컵 응원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판매 중이다.

광주시내 호프집과 식당가 등도 대형 프로젝션 TV 등을 설치하고 월드컵 응원단을 맞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광주지역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가전매장의 매출은 전년대비 20% 가까이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40인치와 50인치 PDP TV가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달에만 40여 대가 팔려나갔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이 네이버 1천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가 "길거리 응원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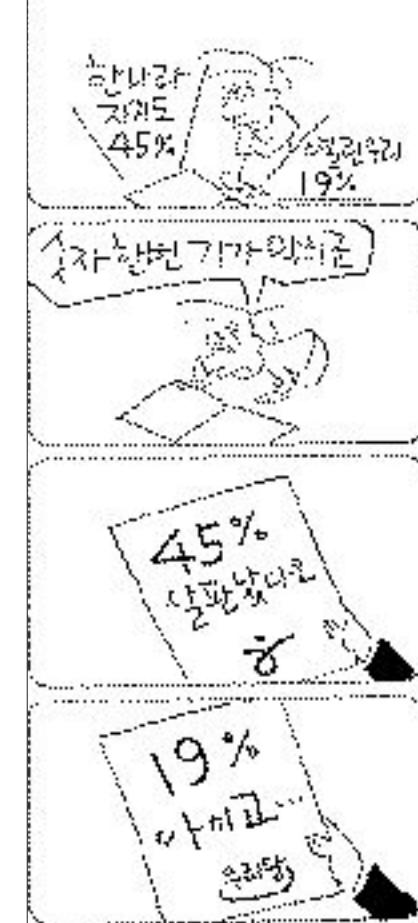
월드컵 이벤트 사기 조심

한국소비자연맹은 23일 지난 4월 이후 인터넷 월드컵 승리 기원 이벤트에 참여하면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속여 데레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 신고가 14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신고된 사이트는 영화나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이 대부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벤트를 알리거나 인터넷 접속 중 광고 팝업창이 또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회원 탈퇴와 결제 취소를 원하고 있지만, 통화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연맹은 덧붙였다.

/이승배기자 lsb@korea.com

나우침
(6836)
김홍우



연예 2차(동립)
대주 피오레
(300여 채대 중 35평당 333평대)
문의 (062)366-4220

시민단체 前 간부 수천만원 갈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3일 납품비 리 등을 협박, 기업체로부터 5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내고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시민연대21' 전 사무총장 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자신 둘째준 은인 집에 불 질러

상대팔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암시를 품은 40대가 2년 넘게 자신을 동생처럼 둘째쳤던 은인의 집에 불을 질러 경찰서행.

○...광주 북부경찰은 23일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광주 북구 운암동 김모(여·58)씨 집에 방화, 3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박모(48)씨를 구속.

○...때돌이 생활을 하던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의 집으로 지난 2004년 전입신고를 한 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왔지만, 최근 구청이 벌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재조사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정부 지원이 끊기자 이에 암시를 품고 지난 18일 불을 질렀다고.

/이승배기자 lsb@kwangju.co.kr

‘선거 치안’ 틈타 강·절도 ‘활개’

광주 남구서 편의점 강도 또 발생

과, 이 남자는 최근 광주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편의점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아닌 새로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22일 낮 12시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버들마을 주공아파트 조모(40)씨 집 등 4가구에 도둑이 침입, 폐불 등 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도둑은 공구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다 집안에서 사람이 고함을 지르면 같은 라인의 다른 집을 터는 등 2시간 가량

아파트 단지 4~8층을 돌며 연달아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성을 보였다.

주민 박모(43)씨는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현관문 열쇠가 부서지자 크게 소리를 질렀고, 열쇠를 부수려던 범인이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분석했으나 낮은 사람의 모습이 잡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계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빈집털이 등 도난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하고 있으나 입주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청문한글교사, 양양교사, 일용교사를 구하는 대상인 학생들의 학습유형을 헤아려보면 무선 대량하고 징고한 학생커리큘럼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구도를 제한 여건이 자주나온다. 대로, 무위의 척도 간사간의 간접과목으로 험해해야 한다. 각대학 교육학의 교수들은 하루, 이틀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험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미숙한 학생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ue.net

전국최고의 유령강사진 출장강
교육학 유아교육 미술
국어 영어 수학
체육 공동과학 일반사회
한국어 성형학 강의중
문의 : (02)816-1646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 교수진, 일찬 교육, 최상의 시설”

모든 과정 재비 수강 가능

실기 계강 1차 (5/15~7/8) 2차 (6/5~7/8)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10:00~11:00 11:00~12:00 12:00~1: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현재 성형학 강의중

9:30~10:50 11:00~12:20 14:30~15:50
16:00~17:20 17:30~18:50 19:00~20:20

제작자 무료과정

과정명 교육내용 시간표

정보화기초-1 원도우, 인터넷 문서편집 활용 19:00~21:30

정보화기초-2 애설, 파워포인트, 컴퓨터 활용 19:00~21:30

사무자동화 원도우, 인터넷, 문서편집 활용, 애설, 파워포인트, 컴퓨터 활용 상담후 결정

■도청외현은행: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325, 565, 777

■전남교원: 3, 11, 27, 38, 65, 111, 118

■예술가극단: 2, 6, 11, 25, 26, 30, 118, 222, 518, 666

www.eduvue.net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현대고시학원 내 3층)

224-4560, 225-7200

공무원 이론반
5월 달 첫진도

주간/야간반운영 개강 6월 1일

공무원시험 새로운 무등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수많은 공무원이 무등출신입니다.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그동안 김영출신 1만명 편입한경

www.kjkyoung.co.kr

MEET/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편입 악대, 한의대편입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뒤) 개강 6월 1일 227-8088